

글. 이지현_ Lee, Ji-hyun

HOK(Hellmuth, Obata and Kassbaum) in Hongkong

베이징 스카이라인의 이국적 오브제_ CCTV 사옥

Exotic objet in Beijing skyline, _ CCTV Headquarters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네덜란드 건축사 렘 쿨하스(Rem Koolhaas), 그가 이끄는 OMA(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가 설계한 중국 중앙 텔레비전의 새로운 본부(CCTV)다.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었던 건물을 중국의 북경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문화적 배경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마저 뒤로한 채 중국정부가 보다 혁신적이고 미래 도전적인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한 선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함이다.

역사적으로 고층빌딩(skyscraper)은 그 형태가 주는, 하늘로 솟으려는 듯한 상승감과 그 수직성으로 인한 공간적 위압감은 물론 때로는 경건함까지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렘 쿨하스는 처음부터 “너무나 반복된 고층빌딩은 오히려 고층빌딩의 의미 자체를 오염시켰고, 건물 높이에 따르는 매싱(massing)과 입면 디자인으로 다른 정체성(identity)을 주려는 등의 노력은 진부함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기에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고층빌딩 디자인의 혁신을 이루어내겠다고 말이다. 그리고 2012년에 북경에 완공된 CCTV는 삼차원적 루프 형상의 건물이 도시 안에서 이루는 랜드스케이프(landscape)를 통해 그의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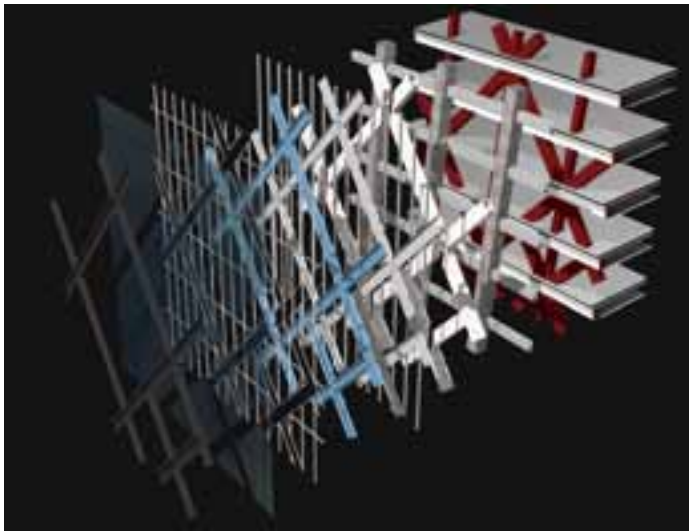


CCTV를 올라다본 모습



CCTV 전경(©Iwan Baan)

CCTV의 건물은 삼차원적 입체의 루프를 형성하는 높이 234m의 고층빌딩으로, 기울어진 두 건물이 조금씩 서로에게 의지하는 듯하다가 37층이 되는 높이에서 약 75m의 캔틸레버로 만나는 형태를 하고 있다. 건물의 주된 하중은 보통의 고층 건물처럼 중심의 코어를 통해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 표면의 규칙적이지 않은 격자 구조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건물의 위치에 따른 다른 크기의 하중이 입면의 격자패턴 밀도로 나타난다.(예를 들어, 격자구조의 밀도가 높을 수록 그 부분은 하중의 이동이 더 많은 것을 뜻한다.)



CCTV 파사드 다이어그램

수직이 아닌 대각선 격자가 선택된 이유는, 첫째; 하중과 관련하여 수직적인 힘의 전달뿐만 아니라 바람이나 지진으로 인한 횡력에도 충분한 견고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위해, 둘째; 수평/수직선이 층수와 높이를 표현하는 데에 반하여 대각선은 층수를 가늠할 수 없고 패턴의 밀도만 있기 때문에 도시 안에서 이 '오브제'가 가지는 모호성을 암시한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 지점은 렘 쿨하스의 미학적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외관 구조는 북경의 스카이라인에 새롭고 미묘한 존재성을 제공한다. 특히 70% 개방 세라믹 프리트의 태양응영 고성능 유리패널을 사용하여, 다른 고층 건물들이 북경의 심한 공기오염으로 빠르게 더럽혀지는 반면 이 건물 고유의 회색은 마치 오래 전부터 북경에 속해있는 듯하다.

사실 이 건물은, 오브제로서 가지는 형태 자체의 위상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매우 실용적이고 프로그램 지향적인 건물이다. 미디어 관련 종사자들이 생산, 방송, 관리 등의 시설이 도시 전역에 흩어져 있을 때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473,000㎡에 달하는 GFA의 CCTV 건물은 TV 스튜디오, 사무실, 방송 및 생산 설비 등의 프로그램들을 한데 모아 수용했다. 건물의 삼차원으로 완결된 루프 형태는 바로 이 미디어가 생산과정에서부터 방송까지 한 루프를 이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상하기도 한다. 타워1은 편집 영역과 사무실, 타워2는 뉴스 방송 관련, 그리고 연결 부분인 캔틸레버 쪽에는 관리 사무실과 공공 영역들이 분포되어 있다. 10,000㎡의 메인 로비는 타워에 지하3층에서부터 지상3층까지 연장되는 놀랄만한 규모의 아트리움으로, 북경의 지하철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서양의 많은 정부 관련 건물들이 그들의 민주주의나 표현의 자유를 표상하기 위해 건물의 투명성을 중시하고 많은 공간을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열어놓는 것처럼, CCTV 건물은 현재 중국정부의 투명성과는 거리가 있을지 모르나 미디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중국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제공한다. 일상적인 스튜디오 작업을 대중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고 CCTV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 전시공간을 만들었으며, 37층의 캔틸레버 부분에 올라서면 북경의 중앙경제지구(CBD-Beijing Central Business District)와 함께 베이징의 전체 조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이 건물이 고층빌딩 역사에 한 점을 찍을 만한 구조적 도전이었던 만큼 유럽과 중국의 구조 기술자들과 건축사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다. 마치 중력을 무시하는 듯 37층부터 얽힌 건물의 볼륨은 시공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불러 일으켰다. 왜냐하면 두 건물이 하나로 병합되기 이전에는 개별 건물이 바람에 의한 횡력과 바깥의 온도 차이에 의한 구조체 자체의 수축력 등을 독립적으로 견뎌야 했고, 게다가 가는 두 건물이 병합된 다음에의 구조 조건과는 다른 형태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디자인 과정에서 건축사들이 완결된 디자인을 구조기술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초기 디자인과정에서부터 세계적인 구조기술자 세실 발몽드(Cecil Balmond)와 Arup이 OMA와 협력하여 거의 합일적으로 설계를 진행해 나갔다. 중국정부 또한 혁신적 디자인을 선보이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고 지원했다. 